연구소 소개

삼성화학중앙연구소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3-12
전화 : 042-865-4084
FAX : 042-865-4080

1. 삼성종합기술원 개요

삼성종합기술원은 삼성의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 21세기 미래핵심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되어 창의와 기술혁신을 모토로 화학부문, 전자부문, 생명과학부문에서 900여명이 향후 10년을 전후해 응용 및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프론티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전자 부문은 정보 입출력 기술, S/W 기술, 초고속 정보처리기술, 전자재료/디바이스, 메카트로닉스,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에너지 기술, 자동차의 전자화기술 등을, 생명과학부문은 기초의학, 임상의학, 임상의공학, 분자치료학 등을 주연구분야로 하여 인간의 면역체계 연구, 유전자치료법, 아직 정복되지 않고 있는 암과 퇴행성질환 등의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삼성종합기술원은 이들 분야외에 올해중으로 대덕에 기계연구소를 설립 시뮬레이션 기술 등 기계기술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삼성종합기술원은 '인류사회를 위한 연구개발' 비젼을 실현키 위해 세계초일류연구소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 화학중앙연구소

기술원 화학부문의 연구를 담당하는 화학중앙연구소는 1995년 4월 대덕연구단지내의 종합화학 연구소 건물에서 30여명으로 시작하여 1년내에 약 77명의 고급인력(박사비율 37%)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삼성화학소그룹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돋음하여 에틸렌 등 기초유분에서 화성품, 합성수지 등 각종 유화제품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산, 이를 국내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일본·동남아 각국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제분업화와 관련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초일류 화학회사로 성장해 나가기위한 기초기반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화학중앙연구소는 화학소그룹 관계사인 삼성종합화학, BP화학, 석유화학, 정밀화학, 제일모직 등의 연구소와 유기적 관계속에 그룹내의 미래핵심기술을 담당하기위해 삼성화학그룹의 주력인 석유화학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독자 Process기술의 확보를 위한 석유/수지분야에 촉매 및 석유공정 과제를 수행하고, 국내외적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환경 복원에 기여하기위한 환경소재분야, 그룹 Synergy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보전자재료분야, 전략사업인 정밀화학의 수직계열화를 위한 정밀화학/바이오텍 분야 등 4개 분야에 연구인력을 집중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흥 종합기술원의 슈퍼컴퓨터 및 전산 네트웍의 환경에 따른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미국, 일본, 러시아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세계수준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우수한 해외인력의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은 화학중앙연구소가 시작하는 단계로 미약한 면도 있으나 98년 대덕단지에 연구소 본동이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삼성화학부문의 연구를 중추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삼성화학중앙연구소 이기정차장〉